

# 말레이시아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유석춘\*\*

## 목 차

- I. 머리말
- II. 가족 및 친족제도
- III. 종교제도
- IV. 교육제도
- V. 맺는말

## I. 머리말

말레이시아는 복합민족 사회이다. 문화와 종교 그리고 언어가 서로 전혀 다른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이 인구의 약 60%, 30%, 10%를 각각 구성하며 함께 살고 있다. 이들 민족집단은 생활양식 뿐 아니라 거주지역, 정치적 이념,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사회통합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복합민족 사회가 된 배경에는 영국의 식민지배가 자리잡고 있다.

19세기 초반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주도권을 다투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1824년 식민지 분할 조약을 체결하여 영국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종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약 이후 영국은 이슬람을 믿으며 술탄의 통치하에 있던 소규모의 말레이 왕국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어 나갔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영국의 식

\* 이 논문은 1993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보고서 "동남아시아의 사회제도" 가운데 말레이시아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서, 1995년 2월 25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토론에 참여해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기태, 김한식, 양승윤, 오명석, 김승진 교수께 감사한다.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민정책은 말레이 사람들에게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활동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대신, 경제적 이익이 많은 주석광산과 해상무역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이었다.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주석자원의 개발과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한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계획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식민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정치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인들을 전통적인 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국제이민을 받아 들여 주석광산의 개발과 항만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였다. 또한 영국은 19세기 후반부터 남미의 아마존으로부터 들어 온 고무나무로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고무농장을 건설하는 식민정책을 새로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력을 다시 인도남부의 타밀지방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러한 영국 식민정책의 결과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문화와 생활습관이 전혀 다른 말레이인, 중국인, 그리고 인도인이 함께 모여 사는 복합민족 사회가 된 것이다. 195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은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간의 갈등과 균열이 표면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급기야는 1969년 5월 대규모의 유혈 민족폭동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 역대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모두 말레이시아를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국가로 유지시키는 작업이었다. 이 글은 복합민족 사회로서의 말레이시아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구성하는 각 민족집단의 기본적인 사회제도 즉 가족 및 친족제도, 종교제도 그리고 교육제도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집단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갈등은 결국 각 민족집단이 간직하고 유지시켜 온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제도의 차별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말레이시아라는 복합민족 사회를 접근하는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Ⅰ. 가족 및 친족제도

말레이시아의 평균가구인구는 1980년 현재 5.2명으로 1970년 5.5명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Bunge ed. 1984, 124) 지역적으로는 말레이 반도의 평균가구인구가 사바와 사라왁보다 다소 작고, 도시와 농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농촌이 도시보다 다소 작은 평균가구인구를 보여 준다. 또한 민족적으로는 말레이인이 중국인보다 훨씬 작은 평균가구인구를 보여 준다. 한편 이

러한 민족간의 차별적 경향은 도시 및 농촌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출산력에서는 말레이인이 중국인과 인도인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 현재 말레이인의 조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32.8 인데 반하여, 중국인은 19.4 그리고 인도인은 23.0 이다.(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1990, 34) 평균가구인구가 출산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각 민족집단이 따르고 있는 가족제도 및 친족제도의 차별성 때문이다.

### 1. 말레이인의 가족 및 친족제도

말레이인은 결혼한 부부의 양쪽 집안을 서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양계(bilateral) 가족제도 및 친족제도를 따르고 있다.(Abdullah & Mohamed, 1982, 111; Djarnour 1959, 23) 또한 확대가족의 형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말레이인은 주거단위로 핵가족을 선호한다.(Hashim 1978, 24) 그러나 핵가족이 주거의 단위가 된다고 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접촉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Bunge ed. 1984, 124)

전형적인 말레이 마을은 '깜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곳은 전통적으로 친족집단이 모여 사는 곳이다. 마을을 이루는 가구들은 서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밀집되어 길을 따라 늘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 마을에서는 주거가 핵가족 단위로 분리되더라도 친족집단이 사회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흔히 식사를 함께 하며 긴밀한 사회적 유대를 갖고 생활한다. 전통적인 농촌 말레이 마을의 가족구조는 매우 단순하여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는데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말레이 농촌에서는 결혼과 함께 혹은 늦어도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되면 주거를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핵가족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도시에서는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대가족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Clarke and Sidhu 1981, 63-86)

결혼한 후 주거할 곳을 결정할 때에도 말레이인들은 일정한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Hashim 1978, 32) 대신 양쪽 배우자 집안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거할 토지가 있는 쪽으로 결정된다. 또한 가능한한 배우자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주거를 마련한다. 한편 여성은 전통적인 말레이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여 왔다. 그들은 살림을 책임지는 일 이외에도 벼(padi), 야채, 그리고 고무 등의 농사일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말레이 가족제도는 현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이혼의 양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Jones 1994, 59-108) 195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말레이 여성은 약 16세 혹은 17세에 결혼하였고 이들은 또한 공식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였었다. 또한 상대방 남자는 나이가 다소 위이고 국민학교 졸업이라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 전형적인 말레이 신부의 나이는 20대 초반이 되고 신랑의 나이는 20대 중반이 된다. 또한 양쪽 모두 국민학교 혹은 중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마친 경우가 많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말레이인의 출산력을 낮추고 또한 가족의 생활양식과 부부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레이인의 이혼경향은 더욱 더 큰 변화를 보여 준다.(Jones 1994, 163-213) 말레이 사람들의 결혼생활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결혼한 쌍 가운데 약 1/3정도가 이혼을 하곤 했다. 특히 말레이 반도의 동쪽 해안지방인 끌란탄(Kelantan)과 트렝가누(Terengganu)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한 것이 이슬람 법이기는 하지만 말레이인의 높은 이혼경향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말레이인의 독특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보여진다. 대부분의 이혼은 결혼한 후 1, 2년 내에 이루어지며, 이혼한 후에 다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이혼에 있어서 남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혼을 주도하는 측은 여자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이혼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혼연령이 올라가고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고, 또 전반적인 국민의 교육수준이 상승하면서 이혼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한편 이슬람 전통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Jones 1994, 268-286) 그러나 일부 소수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남자들만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일반적으로는 단혼이 지배적인 경향이다.

## 2. 중국인의 가족 및친족제도

이민 초기 말레이 반도로 건너 온 중국인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하여 중국식의 가정을 꾸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Sidhu & Jones 1981a, 1-28)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말레이 반도의 중국인 가운데는 남자가 여자의 두배 가량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식민시대에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없었던 중국인 청년들은 많은 경우 지하에서 활동하는 범죄집단에 가담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곤 하였다.(Ackerman & Lee 1988)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식민정부는 1930년대부터 중국인의 이민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때가 되면서부터 결혼할 나이가 된 이민 2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중국인들은 이차대전이 끝난 이후에나 결혼문제를 심각하게 겪지 않게 되었고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중국인의 가족제도는 남자를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을 따르고 있고 또한 가부장적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유사한 모습을 드러낸다.(Abdullah & Mohamed 1982, 113-7)<sup>1)</sup> 결혼을 하면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와서 살며 신랑 측의 집안어른들에게 순종적인 봉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전해 내려가는 가계의 보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딸 보다는 아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 딸이 많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들 중 일부를 말레이인에게 입양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확대가족이라는 강력한 중국인의 가족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Hamilton 1991; Bunge ed. 1984, 125-6)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통해 경제를 장악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식이나 친척들을 고용하며 경영을 한다. 또한 그들은 거래에 필요한 신용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친족관계를 활용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국인의 거래관행이 말레이인의 경제적 진출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민족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중국인의 가족관계가 말레이시아에서 반드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요인, 주거환경의 문제, 그리고 핏줄이 끊기는 경우 등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말레이시아의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1980년 현재 중국인 가구의 32% 만이 확대가족을 유지하고 있을 뿐, 50% 는 핵가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Bunge ed. 1984, 126)<sup>2)</sup>

물론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이 아닌 일인가구 등의 가족형태가 중국인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레이인이나 인도인과 비교하여 중국인의 결혼연령은 상당히 높다.(Bunge ed. 1984, 126) 예를 들어 1947년에 이미 중국인의 평균결혼연령은 남자가 25세, 여자가 20세였다. 또한 1970년 중반이 되면 평균 결혼연령이 남자는 26-27세, 여자는 23세로 각각 상승한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화, 학력수준의 상승, 조기취업

1) 중국인의 가족제도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부계적/가부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로 보면 우리나라는 직계가족인 반면 중국은 확대가족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어 차별성을 갖는다.

2) 확대가족은 가족주기사상(예를 들면 아버지의 사망) 핵가족으로 분열하였다가 다시 확대가족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항상 어느정도의 핵가족 비율은 유지된다.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50년대에는 결혼연령이 높은 것에 비해 중국인의 출산력도 매우 높았다. 당시 중국인 성인여자 한명이 평균 6 혹은 7명의 어린이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결혼연령이 더욱 높아지고 또한 피임이 일반화 되면서부터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 사이에는 이혼의 경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Jones and Sidhu 1981b, 161-184)

### 3. 인도인의 가족 및 친족제도

말레이시아의 인도인들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거주지역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가족제도를 보여준다.(Bunge ed. 1984, 126-7) 농촌에 있는 인도인 마을의 가족은 대부분 고무농장에서 일을 하는 경제적 하층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가족관계에서는 여자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일 것이 요구되어 대부분 고무농장의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시의 인도인 가정에서는 여자가 바깥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인도인의 가족제도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자의 평균결혼연령이 늦추어 지고 있으며, 1950년대에 세 민족 가운데 가장 높았던 출산력도 지금은 많이 낮아져 1980년대가 되면 중국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여 줄 뿐이다.

## Ⅲ. 종교제도

말레이시아의 공식적인 국가 종교는 회교이다. 말레이시아 헌법 제11조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회교 신자를 다른 종교의 신자로 개종시키는 노력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1980년 현재 전체 국민 가운데 회교 신자는 53%, 불교 신자는 17%, 유교 신자는 12%, 힌두교 신자는 7%, 기독교 신자는 7%, 그리고 나머지 4%가 기타의 종교를 믿거나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Bunge ed. 1984, 110)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지역별로 그리고 민족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Sidhu and Jones 1981c, 233-260) 예를 들어 회교의 경우를 보면 말레이 반도에서는 주민의 56%, 사바에서는 주민의 51%, 그리고 사라와크에서는 주민의 25%를 각각 신자로 확보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 반도에서는 단지 2%의 주민이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을 뿐이지만, 사바는 주민의 27%, 사라와크는 주민의 28%가 기독교 신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종교와 민족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말레이 반도의 모든 말레이 민족은 회교신자이고, 중국인은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의 요소를 모두 따르고 있고, 인도인은 거의 힌두교를 믿고 있다. 또한 반도에서 기독교는 중국인의 약 4% 및 인도인의 약 8%만이 믿고 있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민족적 구분과 종교적 신념의 차별성이 중첩되어 있는 까닭에 서로 다른 민족간의 사회적 접촉이 더욱 차단되고 있다. 비록 법적으로는 다른 종교의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만, 결혼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성립은 종교적 신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3)</sup>

### 1. 회교(이슬람)

말레이시아에 이슬람이 퍼지기 시작한 시기는 15세기 말라카 왕국시대이다. 이 시대에 말레이시아에 퍼진 이슬람은 그 이전에 존재하던 토속신앙 및 힌두교와 결합하여 매우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즉 영국의 지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레이시아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종교지도자(술탄)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세속적 권위를 동시에 행사하는 소규모의 술탄 왕국이 난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영국의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도 식민정부는 술탄이 행사하던 각 지역의 말레이 종교와 관습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술탄은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현행 말레이시아 헌법은 각 주의 지배자인 술탄이 각 주에서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sup> 또한 국가 전체의 관심을 끄는 종교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술탄회의가 소집되어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탄이 없는 페낭과 멜라카, 그리고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지역에서는 술탄회의의 우두머리인 말레이시아의 국왕(Yang Di-Pertuan Agong)이 종교적 권위를 직접 행사하고 있다.

3) 예를 들면 이슬람 신자가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려면 상대방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여야 한다.

4) 현재의 말레이시아는 반도에 존재하는 11개의 주(State)와 칼리만탄(보루네오) 북부의 사바(Sabah) 및 사라왁(Sarawak)의 2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반도의 11개 주는 페르니스(Perlis), 꼬다(Kedah), 페낭(Penang), 페락(Perak), 연방의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가 있는 셀랑고르(Selangor), 느그리 쉴빌란(Negri Sembilan), 멜라카(Melaka), 조호르(Johor), 빠항(Pahang), 트렝가누(Terengganu), 그리고 끌란탄(Kelantan)이다. 이 중 페낭과 멜라카를 제외한 반도의 9개 주는 모두 통치자인 술탄을 따로 가지고 있다. 임기 5년의 말레이시아 국왕은 이들 술탄이 모인 술탄회의에서 순번제로 선출된다.

술탄이 우두머리인 각각의 주 정부는 종교적 문제를 관할하는 종교부(Religious Affairs Department)를 설치하고 있다.(Bunge ed. 1984, 110-4) 이 부서는 종교적인 쟁점이 나타나면 의견을 수렴하여 유권해석을 내리고 또한 회교신자에게 부과하는 십일조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책임을 맡고 있기도 하다. 말레이시아의 헌법은 각각의 회교 주에 무슬림에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주는 상속, 약혼, 결혼, 이혼, 과부의 재산권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해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또한 금요일의 예배에 불참하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 혹은 회교의 종교적 권위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문제를 일으키면 무슬림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슬람에서는 공식적인 성직자가 없다. 대신 종교적 신앙이 두터운 지역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도를 주도하거나 설교할 사람을 찾아서 이들이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들은 지식이나 학문, 신앙심, 그리고 성지순례 등의 방법을 통해 종교적 권위를 평가받는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회교사인인 모스크나 기도원(surau)에서의 봉사를 통해 지역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지역사회 엘리트 집단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회교정치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다.

말레이시아 각 주의 술탄은 “믿음의 수호자”인 동시에 종교적으로 위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술탄은 각 주의 종교재판관 무프티(mufti)를 임명하여 회교 종교법정을 주관하는 판사들을 통솔한다. 이들은 상속과 같은 문제에서 상충하고 있는 이슬람법(sharia)과 관습법(customary law)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록 형식적으로는 주 정부의 관리들이 모든 종교적인 문제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마을단위에 존재하는 모스크 사원의 지역 관할권이 간섭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Bunge ed. 1984, 110-4) 거의 모든 마을에 하나씩 있는 기도원은 마을 사람들이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소규모 기도원의 지도자(imam)들은 주 정부의 공식적인 관할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코란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은 대부분 기도원과 모스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초교육은 대부분 코란 귀절을 암송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어린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슬람 공동체의 성원으로 편입된다. 기초교육 이후의 고등교육은 특별히 유명한 지도자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 종교학교(pondok)에서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은 거의 대부분이 ‘수니’파에 속한다. 전세계 회교도의 다수파인 ‘수니’는 종교를 정치의 토대로 받아들여기는 하지만 국가의 지배가 보



다 궁극적이라고 본다. 반면 소수파인 '시아'는 정치적 지배가 성직권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본다.(벨, 1994)<sup>5)</sup> 수니와 시아는 모두 이슬람의 5대 교리를 따른다.(Bunge ed. 1984, 113) 즉 첫째, 신 알라와 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예언자로서 모하마드를 믿으며, 둘째, 의식을 통한 예배(ritual prayers)와 의식을 통한 정화(ritual purification)를 강조하고, 셋째, 자선(alms)을 분배하여야 하며, 넷째,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다섯째, 성지(Mecca) 순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리가 반드시 모든 신자에게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러운 동물인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규율은 말레이시아의 회교 신자 대부분이 따르고 있다. 종교적인 축제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로는 성지순례축제(Pilgrimage Festival, Hari Raya Haji)와 금식완료축제(Fast-Ending Festival, Hari Raya Puasa)를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떠난 날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후자는 한달간의 금식(Ramadan)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행사가 진행되는 날과 예언자 모하마드가 태어난 날은 정기적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회교는 말레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Roff, 1994) 일찌기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집트의 카이로동지에서 공부하고 돌아 온 회교 개혁사상가들은 당시 말레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단적인 관습과 세속적인 권위의 행사를 격렬히 비판하였다. 개혁세력인 젊은 집단 (Kaum Muda: Young Group)은 기독교인 집단인 수구세력(Kaum Tua: Old Group)과 대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는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전개된 민족주의 운동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도 이슬람 부흥운동이 성행하였다.(Abdullah & Mohamed 1982, 122) 이 부흥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콰'(Dakwah: missionary activity or an invitation)라고 불리웠는데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이 종교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철학이나 조직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두가지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전통적인 이슬람의 생활양식에 대한 집착이었고, 둘째는 세속적인 사회상황에 대한 회의였다. 전통적인 이슬람 생활양식에 대한 집착은 복장의 변화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자들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 전체를 휘감는 옷을 많이 입고 다니게 되었다. 심한 경우 이 여자들은 남자들과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이슬람 전통을 고집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까지 말레이시아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엄격히 분리시키는 이러한 이슬람의 전통을 전혀 따르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엄청난 충격을 사회에 던지게 되었다. 토착적인 말레이 전통의 영향을

5) 후자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드러나는 경우가 이란 혁명 이후의 호메이니 신정체제일 것이다.

배제하고 세속적인 생활까지도 이슬람 교리에 충실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회교 근본주의에 영향을 받은 다과운동은 오늘날까지도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을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운동의 목적과 전략을 둘러 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Roff, 1994) 부패한 근대사회를 내던지고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새로운 공동체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 정치적 행동과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슬람의 사회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입장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레이 기성세대까지도 이 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모두 권위에 저항적이며, 말레이시아의 민족적 및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 3. 중국인의 종교

중국인들은 대부분 유교, 불교, 도교라는 세가지 종교를 동시에 어느정도씩은 모두 수용하고 있다.(Sidhu and Jones 1981c, 233-260) 이들 세 종교는 서로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이 보여 주는 종교적 실행의 차이는 단지 그들이 중국의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셋 가운데 어느 하나를 특별히 많이 따르고 있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유교는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도교는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적인 수양을 쌓을 것을 강조하며, 불교는 윤회와 업보의 사상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면 모든 생명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상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세 사상은 모두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보다는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레이 반도에 건너 온 중국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나 소상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 개인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Bunge ed. 1984, 114-116) 조상숭배라는 종교적 믿음은 살아 있는 자손들이 죽은 선조들과 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양자가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조상을 섬기고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후에 조상들을 댁댁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인들은 세상만물에 모두 그것을 관장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귀신들은 모두 고대 중국의 설화나 불교 및 도교에 뿌리를 둔 전설에 나오는 인물들

이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종교적 관습에서는 특정한 종교에 대한 배타적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종교를 섞어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sup>

#### 4. 힌두교

인도인들이 믿는 힌두교는 여러가지 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한 교리나 의식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여 준다.(Kasimin 1991, 114-139) 심지어 오늘날 힌두교의 정통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조차도 6개의 서로 다른 교파를 가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종파는 시바이즘(Sivaism) 과 비스누이즘(Vishnuism)이다.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인도인들은 농장에서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무사하기를 빌고, 가족과 친족의 안녕과 복지를 기원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힌두종교를 가지고 왔다.(Abdullah & Mohamed 1982, 118) 그러나 대규모 고무농장의 비인간적 작업환경으로 인해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힌두교에서 섬기는 잡다한 신들을 모실 수 있는 대상이 손쉽게 구해지지 않아 이러한 종교적 경향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새 환경에서도 종교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Rajoo 1985) 모든 고무농장은 힌두교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섬기는 사원을 하나씩 차려 놓음으로써 인도인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종교적 대상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인도인들은 자신이 나가는 사원의 신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다른 사원으로 옮겨 기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인도인들에게 사원은 집단적인 기도를 위한 장소이기 보다는 단지 신이 거주하는 거처일 뿐이기 때문에 한 신을 모시는 사원이 효력이 없으면 다른 신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한 신자들은 사원의 의식에 전혀 간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정신적인 고양과 축복을 받고 성직자를 통해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사원에 출입한다.

#### 5. 기독교

1980년 현재 기독교 교인이라고 조사된 약 100만의 사람들 가운데 60% 이상은 사바와 사라와크헤 거주하고 있다.(Sidhu and Jones 1981c, 233-60) 말레이 반도의 사람들은 단지 2%의 주민만이 기독교를 믿는데 반해, 사바와 사라와크는

6) 말레이시아에 고립되어 살게 된 중국인들의 종교적 관습은 현지 적응 과정에서 그 일부가 변형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집에서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조상의 대상이 많이 줄어들어 요즈음은 부모나 조부모 정도의 조상에 대해서만 의례를 치룬다.

주민의 약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따라서 반도의 주민 가운데 말레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고 중국인과 인도인의 경우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다. 중국인보다 인도인이 기독교를 믿는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중국인이 절대 인구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중국인이 더 많다.

말레이시아의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 감리교, 영국국교, 장로교, 제7일 안식재림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민지 시대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영어학교와 병원 등을 지으며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말레이인들을 말레이 학교에 보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인되어 말레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기도 하였다.(Bunge ed. 1984, 118) 반면에 특정한 종교적 신념에 얽매이지 않는 중국인들에게는 이들의 행동이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 IV. 교육제도

말레이시아에서는 공식적인 교육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뿌독(pondok)**이라고 불리우는 마을 단위의 종교적 수련을 위한 이슬람 학교가 교육의 전부였다. 이 종교학교의 학생들은 선생의 집에서 기거하며 공부를 하였고 등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선생의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였다.(Gullick 1981, 219)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공립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Kee and Hong 1975) 농촌에 설립된 국민학교의 교육목표는 알파벳 문자인 Rumi와 아랍문자를 약간 변형한 Jawi 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선교사 혹은 정부에 의해 세워지기도 하였다. 식민지배기간 교육예산의 규모는 보잘것 없었지만,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는 말레이어나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도시의 학교는 모든 민족의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지만, 도시에는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중국인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시행된 식민교육은 이중적인 것이었다.(Bunge ed. 1984, 119) 즉 한편으로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식민행정과 수출경제를 담당할 소수의 고급 인력을 길러내야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질서를 의심하지 않도록 교육의 질을 낮추어야 하였다. 따라서 농촌의 농민에게는 말레이

어의 교육이라는 최소한의 교육목표가 설정되었다. 반면에 식민관료의 충원을 위한 엘리트 교육은 영국의 이튼 스쿨(Eton School)을 모방하여 쿠알라 캉사르(Kuala Kangsar)에 세워진 중등학교 말레이 학교(Malay College)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이 학교는 소수의 말레이 귀족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키며 영어로 교육을 하였다. 말레이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는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은 페락(Perak)의 탄종 마림(Tanjong Malim)에 설립된 Sultan Idris Training College 였다. 이 학교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말레이 국민학교의 교사들을 길러내는 사범학교로 출발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말레이 민족주의 지식인 및 정치인들의 산실이 되었다.(Kee and Hong, 1975)

식민정부는 중국인과 인도인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에 걸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Gullick 1981, 223) 따라서 중국인들은 스스로 힘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학교를 세우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제도를 세워 나갔다. 물론 중국인 학교의 교과과정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고 교사의 충원도 중국으로부터 직접 이루어 졌다. 한편 인도인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해서 각 고무농장은 국민학교 수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Bunge ed. 1984, 120) 그러나 농장의 관리자인 유럽인들은 타밀(Tamil) 언어를 통한 인도인 국민학교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10세를 넘어서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민족별로 시행된 자국어 국민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영어로 가르치는 중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Remove Class 라는 1년과정의 집중적인 영어교육 과정을 통과하여야만 하였다.(Bunge ed. 1984, 120)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 중등학교로 취학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자국어를 통한 국민학교 교육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식민 교육의 기회였다. 물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는 영어로 가르치는 중등학교를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었다.<sup>8)</sup>

8) 식민시대에는 말레이인의 교육수준이 중국인이나 인도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Bunge ed. 1984: 121) 그 이유로는 흔히 농업이나 어업에 주로 종사하던 말레이인들이 교육에 큰 관심이 없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곤 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교육기회의 제공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말레이인의 학교교육이 가능하였던 동부해안 지방에서는 이들의 자녀들의 취학율이 다른 인종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레이 학생들도 다른 인종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준의 진학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인이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을 갖게된 이유는 교육

독립을 전후한 1950년대와 60년대에 말레이시아는 여러가지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혁하였다.(Kee and Hong, 1975) 그 결과 모든 국민학교의 교과과정이 통일되었고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중등학교가 생겨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교육개혁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반면에 말레이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의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많은 언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말레이 교육정책의 가장 핵심 쟁점은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Bunge ed. 1984, 121) 비록 개혁을 통해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중등학교를 많이 세우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국인과 인도인은 말레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를 졸업하여야 사회경제적인 상승이동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학교를 다닌 말레이 학생은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다언어 교육정책은 민족별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고 또한 동시에 도시 중산층에게 영어를 사용하는 교육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정책은 민족간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었다.(Gullick, 1981, 224)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쟁은 1969년 민족폭동을 겪은 이후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를 모두 1970년부터 말레이 학교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발표됨으로서 일단락되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같은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1991, 3) 모든 국민은 6세가 되면 6년 수학과정의 국민학교에 취학하여야 한다.<sup>9)</sup> 국민학교 교육은 민족에 따라 3가지 다른 언어로 교육된다. 그러나 1970년 이래 말레이어가 교육의 공식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어와 타밀어로 국민학교를 마친 학생은 1년간의 Remove Class 를 성공적으로 마쳐야만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국민학교를 마친 학생은 누구나 국가가 지원하는 3

기회가 이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필요한 어학교육의 부담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급학교인 중등학교는 모두 영어를 사용하였고 또한 대부분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촌의 학교 교육 보급이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채택된 독립 이후에는 인종간의 학력격차가 평준화되었다. 또한 남녀간에 존재하던 전통적인 교육수준의 차이도 제거되고 있다.

9) 국민학교 취학은 말레이 반도에서 1962년에 의무화 되었고 사바와 사라와크에서는 1966년부터 의무화 되었다.(Wong 1977, 5)

년 과정의 종합 인문교육인 중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학교 과정이 끝나면 모든 학생은 국가가 시행하는 기초학력고사(Lower Certificate of Education, or Sijil Rendah Pelajaran: SRP)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2년 과정의 인문계 고등학교나 직업학교 및 기술학교로 나뉘어져 진학을 하게 된다. 이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다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학력고사(Malaysian Certificate of Education, or Sijil Pelajaran Malaysia: SPM)를 치루고, 직업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직업학력고사(Malaysian Certificate of Vocational Education, or Sijil Pelajaran Vocational Malaysia: SPVM)를 치른다. 이 시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2년 과정의 예비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한다. 예비대학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 또 다시 학력고사를 치루어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한다.<sup>10)</sup>

〈표 1〉은 최근 말레이시아의 각급학교 취학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표는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 국민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중학교 교육도 국민의 80% 이상이 누리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경향은 국가예산에서 교육부문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표 2〉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말레이시아의 교육예산의 비중은 13.5%에서 17.5%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말레이시아가 80년대에 급속한 경제적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체 국민 경제의 규모에서 교육부문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말레이시아가 국민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다는 증거가 된다.

표 1: 각급 공립학교 취학율(%), 1986 & 1989.

	1986	1989
국민학교	96.6	99.0
중 학교	84.9	82.9
고등학교	48.3	49.1
예비대학	16.8	16.4
정규대학	2.3	2.7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1991, 21.

10)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엘리프 중심의 교육제도를 물려받고 있다. 이 교육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교육의 각 단계마다 실시되는 국가시험 제도일 것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학력평가시험은 한 동안 영국으로 공수되어 채택되기도 하였지만, 1982년부터는 말레이시아 시험위원회(Malaysian

표 2: 교육예산의 변화(정부예산 및 GNP 대비 %), 1981-1989.

연도	교육예산/정부예산	교육예산/GNP
1981	13.4	5.6
1985	15.4	6.3
1989	17.5	5.6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1991, 119.

말레이시아의 대학교육은 이미 2차대전 이전부터 싱가포르에 있던 Raffles College 와 King Edward VII College of Medicine 의 두 단과대학이 1949년 종합대학으로 통합하면서 시작되었다.(Gullick, 1981, 231) University of Malaya 라는 새 이름으로 통합된 이 대학은 1959년에 쿠알라룸푸르의 교외에 분교를 설치하였다. 그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다음부터는 쿠알라룸푸르에 있던 분교가 University of Malaya 라는 명칭을 계승하게 되었다.<sup>11)</sup> University of Malaya 는 설립된 이후 줄곧 훌륭한 대학이라는 명성을 유지하여 왔지만, 이 대학은 말레이인의 저조한 입학율 때문에 말레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어 왔다.(Gullick, 1981, 224) 예를 들어 이 대학의 1963/64 학년도 말레이인 입학율은 정원의 21%에 불과하였다. 더우기 과학과 의학, 그리고 공과대학의 교수진에는 말레이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말레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다.

1970년대가 되면서 말레이시아에는 4개의 새로운 대학이 설치되었다.(Mohamed, 1977, 106-16) 때낭 과학대학 (Universiti Sains Malaysia), 말레이시아 국립대학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말레이시아 농업대학 (the Agriculture University of Malaysia in Serdang), 그리고 말레이시아 기술대학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이 각각 설치된 것이다. 대학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율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더욱 특이한 사실은 대학에 진학하는 민족구성이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대학생 중 말레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예를 들어 1977년의 경우 전체 대학생의 3/4이 말레이인이었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대학입학 정원을 민족별로 할당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때문이었다.(Gullick 1981, 232)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인들은 중국어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Merdeka University 라는

Examination Committee)가 이러한 기능을 맡고 있다.(Bunge ed. 1984, 122)

11) 싱가포르에 있던 본래의 캠퍼스는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로 변신하였다.



사립대학의 설치를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탄원하기도 하였으나 1978년 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Gullick 1981, 233)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정원에서 중국인의 쿼터를 늘려 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말레이인의 대학진학 기회에 대한 우선권이 보장되고 있어 도시의 비말레이 중산층 사이에서는 해외유학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해외유학생의 절대 다수가(약 60%) 중국인 학생이다. 말레이인의 비율은 단지 23%에 그치고 있다.(Bunge ed. 1984, 123)

## V.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복합민족 사회로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민족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민족간의 제도적 차별성을 뿌리깊게 지니고 있는 사회이다. 1969년의 민족폭동 이래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여건에 처해 있던 말레이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말레이인의 진출은 뚜렷한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보면 비말레이인 특히 중국인은 국가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지금은 마하티르 수상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 아래 말레이시아가 특별히 드러나는 민족간의 분쟁없이 경제적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민족간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의 잠재력은 언제라도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발전을 무너뜨릴 수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 본 종교적 신념의 다양성, 가족제도의 차별성, 그리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언제라도 지금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뿌리 깊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벨, 다니엘. 1994. "세계의 불씨: 회교 근본주의의 전개." 『월간조선』 6월호
- Abdullah Taib & Mohamed Yusoff Ismail. 1982. "The Social Structure." in Fisk, E.K. & H. Osman-Rani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Malaysia*. KL: Oxford University Press.
- Ackerman, Susan and Raymond Lee. 1988. *Heaven in Transition: Non-Muslim Religious Innovation and Ethnic Identity in Malay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unge, Frederica. ed. 1984. *Malaysia: A Country Study*. Washington D.C.: Federal Research Division.
- Clarke, Colin and Manjit Sidhu. 1981. "Pluralism and Segregation in Peninsular Malaysia." in *Population Dynamics in a Plural Society: Peninsular Malaysia*. KL: University of Malaya Co-operative Bookshop.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1990. *Yearbook of Statistics*. KL.
- Djamour, J. 1959. *Malay Kinship and Marriage in Singapore*. London: Athlone Press.
- Fisk, E.K. & H. Osman-Rani eds. 1982. *The Political Economy of Malaysia*. KL: Oxford University press.
- Gullick, John. 1981. *Malaysia: Economic Expansion and National Unity*. London: Ernest Benn.
- Hamilton, Gary. 1991. *Business Net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HongKong: University of HongKong Press.
- Hashim, Wan. 1978. *A Malay Peasant Community in Upper Perak*. Bangi: Penerbit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 Jones, Gavin. 1981. "Trends in Marriage and Divorce." in *Population Dynamics in a Plural Society: Peninsular Malaysia*. KL: University of Malaya Co-operative Bookshop.
- Jones, Gavin. 1994. *Marriage and Divorce in Islamic South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Gavin and Manjit Sidhu. 1981. "Ethnic and Regional Difference in Marital Status." in *Population Dynamics in a Plural Society: Peninsular*

- Malaysia*. KL: University of Malaya Co-operative Bookshop.
- Kasimine, Amran. 1991. *Religion and Social Change Among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Malay Peninsular*. Selangor Darul Ehsan: Jiwamas Printers.
- Kee, Francis Wong Hoy & Ee Tiang Hong. 1975. *Education in Malaysia*. KL: Heinemann Education Books.
- Malaysia. 1991. *Sixth Malaysia Plan: 1991-95*. KL: National Printing Department.
- Mohamed, Suffian. 1977. "University Education," Wong, F.H.K. ed. *Readings in Malaysian Education*. KL: Penerbit Universiti Malaya. pp. 1-27.
- Mohd. Taib Osman ed. 1985. *Malaysian World-View*.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Rajoo, R. 1985. "World-View of the Indians with Regard to Their Social Identity and Belonging in Malaysia." Mohd. Taib Osman ed. *Malaysian World-View*.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Roff, William. 1994. *The Origin of Malay Nationalism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idhu, Manjit & Gavin Jones. 1981a. "Population Distribution in Peninsular Malaysia: Historical Trends and Contemporary Issues." in *Population Dynamics in a Plural Society: Peninsular Malaysia*. KL:University of Malaya Co-operative Bookshop.
- \_\_\_\_\_. 1981b. "Population Growth in Peninsular Malaysia." in *Population Dynamics in a Plural Society: Peninsular Malaysia*. KL:University of Malay Co-operative Bookshop.
- \_\_\_\_\_. 1981c. "Religious Composition." in *Population Dynamics in a Plural Society: Peninsular Malaysia*. KL: University of Malay Co-operative Bookshop.
- \_\_\_\_\_. eds. 1981. *Population Dynamics in a Plural Society: Peninsular Malaysia*. KL:University of Malaya Co-operative Bookshop.
-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1991. *Educational Statistics of Malaysia 1989*. KL: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 Wong, F.H.K. 1977. "History, Structure, Administration, and Objectives."

112 「동남아시아연구」 제4호(1996)

Wong, F.H.K. ed. *Readings in Malaysian Education*. KL:Penerbit Universiti Malaya. 1-27.